

공공도서관 노령자서비스에 대한 잠재이용자 인식 연구*

- 대전지역 노인복지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User's Cognition of Public Libraries' Service for Senior Citizens : Through Survey of Senior Citizens' Welfare Center Users

김 영 신(Young-Shin Kim)**

목 차

- | | |
|-----------------------------|---------------|
| 1. 서 론 | 3. 데이터분석 및 논의 |
| 2. 고령화 사회의 제 문제와 노령자 교육프로그램 | 4. 문제점 및 제언 |
| | 5. 결 론 |

초 록

노령화 사회로의 빠른 이행 중에 있는 우리나라는 노령자들의 정보소외가 심각한 경제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정보운영능력(information literacy)을 경계로 생성되는 정보격차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며, 정보배포의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노령자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 정보요구, 선호정보원, 희망교육주제 등을 비교적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령자들이 다니는 노인복지관 교육프로그램 수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수준은 매우 낮았으며 연령대에 따라 선호 프로그램 유형이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ABSTRACT

As Korea enters into an aging society, the problem of information literacy against senior citizens is becoming a socioeconomic issue in Korea. Since most of the public libraries in Korea are already equipped with infrastructures for information dissemination, they may be able to solve this problem most effectively among public organizations. In this study in order to investigate senior citizen's general understanding of public library, cognizance of the programs for them, their information request levels, preferred content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etc., 176 participants in educational programs at two senior citizens' welfare center were interviewed and surveyed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surveyed data has shown that the senior citizen's general understanding of public library was very poor and that those under 75 years old preferred educational programs and those over 75 preferred recreational ones. Recommendations were mad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키워드: 공공도서관, 노령자봉사, 정보빈곤, 평생교육

Public Library, Service for Senior Citizens, Information Poverty, Lifelong Education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hnukysb@hannam.ac.kr)

논문접수일자 2007년 5월 9일

계재확정일자 2007년 6월 12일

1. 서론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고령화라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에 이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적다. 한형수(2006)에 의하면 노령인구는 다른 연령층보다 의료보호, 생활보호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이러한 사안들은 막대한 사회적 지출을 요하기 때문에 노령자 문제는 사회와 국가에 거대한 도전적 과제가 되며, 따라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IT강국에 속하며 국민 중 다수가 개인 컴퓨터를 소유하고, 신속한 정보접근이 가능한 환경 속에 있으나, 대부분의 노령자는 이러한 면에서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다. 소득과 교육이 과거의 불평등 요인이었다면, 정보접근에 있어 불평등은 이 시대에 노령층을 고립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장혜란(2002)은 노령자들이 원하는 생활의 정보화는 가시적이며 실제적인데 비해 노령자를 겨냥한 실용화된 정보서비스는 많지 않아 정보사회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장덕현(2003)도 정보운영 능력(Information literacy)이 사회구성원의 기본 기능으로 인식되는 시대에 정보운영능력 없는 정보유통 구조로부터 유리되어 소외에 이르게 되고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공공도서관은 사회의 실질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실행기관으로서 당시대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해 왔다.

따라서 정보시대의 공공도서관은 정보사회의 혜택을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분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실행기관 중 하나이다. 정보격차 해소문제가 국가적 과제가 된 이때에 새로운 정보소의 계층으로 부각된 노령자의 정보접근 문제에 공공도서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령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정보소통, 정보획득, 정보제공에 대한 잠재이용자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여 이러한 기능의 일차적 책임기관이며, 기술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에서의 바람직한 노령자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관심 문제는 공공도서관 노령자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노령자의 인지와 인식, 공공도서관 노령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이용하는 경우 선호하는 서비스 및 필요한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령자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여러 기관 사이에서 공공도서관이 정보유통기관으로의 전문적 역할수행 방안과 수혜자 관점에서 유용한 서비스 개발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 노령자 프로그램 및 이용자 조사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노령자 프로그램 분석연구(정종기 2001, 고경희 2002)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 관점을 살펴 보았으며, 이용자연구(박옥화 2007; 이제환 등 2004; 장덕현 2003; 장혜란 2002)를 통해 선호 프로그램, 이용자 요구와 특성, 이용통계 분석으로부터 이용자 관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노인복지라는 큰 틀

속에서 정보격차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살펴보았다(김선호 2002: 김철주 2004: 방하남 2006: 한형수 2006).

둘째, 공공도서관 노인서비스의 주 이용자인 건강하고 활동적인 중류층 노인(박옥화 2007)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노인 복지관 이용 노령자를 잠재 이용자로 설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을 구성하기 전 노인복지관 교육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향, 여가시간 이용행태, 정보추구행태와 관련된 정보를 얻어 이를 참고하여 설문문항을 만들었다.

셋째, 데이터 수집방법은 15개 항목의 설문을 사용하였다. 일정 연령이 넘으면 지역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는 판단하에 편의상 대전지역 노령자를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노인복지관 교육 현장에서 일대일 면담식으로 실시하였으며 간단한 개방식 면담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넷째, 이용자의 직업, 연령, 학력과 도서관 이용목적, 인식, 이용유무 희망사항의 요인간 상

호 관련성은 정종기(2001), 장혜란(2002)의 선행연구에서 이미 규명 되었기에¹⁾ 본 연구에서는 항목별 기술통계량을 구하기 위한 빈도분석을 하였다.

2. 고령화사회의 제 문제와 노령자 교육프로그램

2.1 경제 사회적 문제

선우덕(2006)은 고령자의 3대 고통을 빈곤, 질병, 소외감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하락과 맞물리며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불균형은 막대한 비용부담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진단과 다각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2.1.1 경제적 측면

<표 1>에서와 같이 0~14세 인구대비 65세 이

<표 1>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²⁾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20	2030
노년 부양비(%)	5.7	6.1	7.4	8.3	10.1	12.6	14.9	21.8	37.3
노령화 지수	7.2	11.2	20.0	25.2	34.3	47.4	66.8	124.2	214.8
노인 1명당 생산가능 인구(명)	17.7	16.3	13.5	12.0	9.9	7.9	6.7	4.6	2.7

자료: 고령자통계, 2005

- 1) 정종기(2001)의 연구에서 퇴직 전 직업과 공공도서관 이용목적, 인식, 희망사항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과 이용목적, 인식, 이용유무, 희망사항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학력과 이용목적, 인식, 희망사항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퇴직 전 직업과 학력은 이용유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혜란(2002)의 연구에서 연령은 정보요구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 2)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노령화 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노인 1명당 생산가능 인구 = (15~64세 인구 / 65세 인구)

상 인구비율인 노령화 지수가 2010년에 66.8%, 2020년에는 124.2%, 2030년에는 214.8%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통계청의 고령자통계(2005)에 의하면 16-64세의 생산가능 인구대비 65세 이상 부양대상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2010년에 14.9%, 2020년에 21.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2030년에는 노동력의 마이너스 성장에 도달할 것이라 한다. 선우덕(2006)의 연구에서 노령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50만원 미만이 29.7%, 100만원 미만이 52.9%(누계)로 전 노령인구의 10%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밝혀졌다.

한형수(2006)는 이와 같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인부양비율의 증대는 성장,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 가구수준의 소비저축에 영향을 미치므로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량(Gross Domestic Product)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리라 전망하였다. 65세 이상 노령자의 30.8%가 현재 취업 중(자영업 포함)으로 나타나는데 방하남(2006)은 더 많은 노령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한다면 노동력의 규모리는 양적 측면과 함께 경제활동인구의 기반이 넓어지고 경제적 의존도인 부양비가 감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새로운 기술에 적응력과 학습 능력, 특히 IT기반의 훈련과 교육이 절실하다.

따라서 정부는 정보운영 능력교육과 같은 기초적인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노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노령자 자신도 빠른 사회적 변동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개인의 적응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1.2 사회적 측면

한형수(2006)는 고령화의 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문제가 은퇴에 따른 사회적 역할의 상실, 핵가족 제도 확산으로 인한 가족 내에 지위 상실, 경제적 부양문제의 사회차원으로서의 이전, 정보접근 미숙문제, 세대 간의 소통갈등, 여가시간의 증대와 문화생활에의 욕구증대에 부응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프로그램의 미비와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2005)에서도 노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경제적 어려움(45.6%), 건강(27.1%), 직업 없음(6.1%), 소일거리 없음(6.8%), 노인시설 부족(4.4%)으로 나타나 노령자의 사회적 관심사는 당연히 그들이 겪는 생활 속의 어려움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령자들의 사회적 관심사를 조사한 선우덕(2006) 연구 결과를 <표 2>에서 볼 수 있다. 노년 초기에는 취업지원 문제에 후고령층보다 상

<표 2> 65세 이상 노령자의 사회적 관심사

	65 - 75세	75세 이상
노후소득보장	45.7%	62.6%
취업지원	28%	16.8%
요양보조서비스	14.4%	13.8%
문화여가 복지	6.0%	2.9%
세대간 가치관	1.0%	0.3%
환경	5.0%	3.4%
기타		0.1%

대적으로 더 관심을 보이다가 75세 이상이면 생계지원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리고 문화여가 복지에 대한 관심은 목욕, 간병인 보조서비스 다음으로 오는데 이것도 6%에서 75세 이후에는 2.9%로 줄어든다.

노령자들의 건강상태, 재정상태에 따라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욕구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노령자들은 교통안전, 청소 등의 단순작업보다는 그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참여를 하고 싶어 한다. 그들의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사회에서 만든다면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필요한 실생활 위주의 정보접근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기술 교육을 평생교육사회시스템의 가동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참여 활동의 거점기관으로 대규모 노인복지관도 고려될 수 있으나 여가활동 위주의 복지관 보다는 지식사회에 지식정보 유통기관으로의 인프라를 갖추고, 일상 생활권 내에 존재하는 공공도서관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잘 기획된 공공도서관의 노령자 프로그램을 통해 노령자 자원봉사나 평생학습과 같은 새로운 노년문화도 자랄 수 있을 것이다.

2.2 정보격차와 노령자 정보소외

정보사회의 역기능 중 하나가 정보빈곤집단

즉 정보욕구는 있으나 정보환경의 빈곤 때문에 필요로 하는 정보나 정보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정보빈곤 현상의 심화이다.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정보기술의 적용범위가 확대될수록 이러한 정보격차 현상은 구조화되면서 만성화된다(이제환 등 2004).

2.2.1 정보격차의 개념

김철주(2004)는 정보격차를 '정보의 접근 및 이용이 사회집단 간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는 현상' 또는 협의로,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개인적 교육수준, 경제력, 정보기술 이용에 대한 동기부여, 정보문해력, 정보기술 접근도, 정보의 상품화와 집중화라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보격차의 다양한 차원과 유형을 김철주(2004)는 다음의 <표 3>과 같이 명료하게 정리하였다.

2.2.2 세대별 정보격차

통계청 자료(2001)에 의하면 30대 인구의 90%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나 노인의 경우는 13.5%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장덕현(2003)은 학력이 낮은 노령자가 활자에 익숙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문구독이나 독서비율이 낮아 지식

<표 3> 정보격차의 차원과 유형

정보격차의 각차원	정보격차의 유형
주체	성별,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민간/공공, 국가간, 장애인
대상	아날로그와 디지털, 일상생활정보와 업무정보
심화정도	정보취약, 정보단절, 정보계층화, 정보계급화
메커니즘	정보접근격차, 정보활용격차, 정보생산격차

정보사회에 적응이 더욱 어려운 것을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이 부족하고 공식적 정보서비스 기관과 접촉 기회가 거의 없는 노령자들은 정보의 흐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표 4〉는 소외계층 정보화를 위한 정보격차 실태조사표로 한국전산원이 2000년도에 발표한 자료이다. 여기서 정보화 소외집단은 인터넷을 들어 본 적이 없거나 들어 보았어도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는 동시에 이용 의지도 없는 집단이며, 정보화 욕구집단(1)은 인터넷을 들어 본 적이 없고 내용도 알지 못하지만, 이용 의지는 있는 집단이며, 정보화 욕구집단(2)은 인터넷을 알면서 동시에 이용 의지도 있는 집단이며, 마지막으로 정보화 무관심 집단은 인터넷을 알고는 있으나 이용 의지가 없는 집단을 말한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100% 정보화 욕구집단에 속한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 질수록 정보화 소외집단의 비율이 높아져 60대 68.6%, 50대 37.9%, 30대 9.3% 식으로 배가 됨을 볼 수 있다. 노령층이야말로 정보격차의 최저점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령자의 이러한 정보소외의 구체적 원인이 정부시책을 포함한 그 어떤 원인보다도 정보접근의 필요성과 정보의 유용

성에 대한 노령층 자신의 인지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생교육과 노년층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교육은 지식정보 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과 유용성의 인지문제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하겠다.

2.2.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정보격차는 정보사회에 대한 대비 노력의 정도 차이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김철주(2004)의 연구에서 10대는 42.7%가 어떤 방법으로도 정보사회에 대비하는데 비해 50대의 64.3%는 컴퓨터를 잘 모른다던가 인터넷 사용이 불필요해서라며 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 소외집단일수록 자신들의 열악한 정보환경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공정보서비스 혜택조차 추구하지 않는 경향이다. 연령이 높아 질수록 정보사회에 대한 대비가 없을 뿐 아니라 필요성조차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0년부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전담부서로 하여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2001)을 세우고, 보건복지부는 노인정보화교육 등을, 정보통신부는 장애인, 노인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사업(2002)과 노인정보화 교육 등 다각적인 시행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표 4〉 연령별 정보취약집단 분류

구 분	정보화소외집단(%)	정보화욕구집단(1)(%)	정보화욕구집단(2)(%)	정보화무관심 집단(%)
10대	-	-	100	-
20대	14.3	22.7	59.7	3.4
30대	9.3	21.1	66.0	3.6
40대	17.6	25.6	46.2	10.5
50대	37.8	16.4	29.8	16.0
60대	68.6	10.9	5.1	15.4

자료: 한국전산원, 2000, 「소외계층 정보화를 위한 정보격차 실태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정보격차는 소득격차, 복직격차 등을 심화시키는 제2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장덕현, 임신영(2005)은 정보사회가 정보 선도층과 취약층으로 양분되어 계층별, 지역별, 연령간, 학력간의 차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정보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재편입되지 못한 농촌 거주자, 외국인 노동자, 도시 저소득층, 장애인, 노령층이 정보빈곤 집단으로 재편성되면서 이러한 소외구조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빠르게 고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격차의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에서 감당하기엔 너무 큰 사회적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와 사회가 정책적으로 접근하며 교육기회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공도서관 같은 실행기관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정보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2.3 공공도서관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이란 인간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며 전 생애에 걸쳐 행해지는 교육으로 유아교육, 아동교육, 청년교육, 성인교육, 노인교육을 지속적으로 통합한 교육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주5일 근무제와 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한 확대된 기능의 공공도서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누구나 평생에 걸쳐 교육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관으로의 새로운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2.3.1 평생학습기관으로의 공공도서관

김영준(2006)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초

기에 사회교육 개념으로 부터 시작하여 1999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됨과 함께 평생교육관으로 발전하였고, 2002년 '평생학습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후 평생학습관으로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개관 하였다.

다른 관종의 도서관은 자료이용 중심의 정보서비스가 주 업무이지만 공공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과 평생학습관 기능 그리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복합적인 기능 수행을 하도록 요구받는다(김홍렬2004). 그리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 속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곽동철(2005)은 지적하였다. 즉 지역사회주민들의 참여와 주민과의 관계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종기(2001)에 의하면 주민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갖기 위해 첫째 우호적인 믿음이 형성되어야 하며, 둘째, 변화에 대하여 주민과 같이 호흡해야 하고 셋째 도서관의 서비스 개발사업이 주민에게 신뢰 받아야 하며 넷째 지역사회 속에 존재하는 연관 단체들과 협력하며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김영준(2006)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시민들의 학습요구는 날로 다양화하고 고도화되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설 네트워크와 인재 네트워크로 구성된 평생학습시설 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평생학습네트워크의 특징을 김영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 ① 교육시설의 상호연계: 공민관, 도서관, 박물관, 직업훈련원, 복지시설 등 교육시설

- 상호간의 연계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 ② 상호 거점시설과의 연계: 도서관, 박물관, 공민관 등의 시설이 우체국, 역, 쇼핑센터 등의 민간시설과 협력하여 문화사업과 정보제공 도서대출 서비스를 수행한다.
 - ③ 학교와의 연계: 대학이 지역주민이 수강하기 쉽도록 지역사회에 출장 공개강좌를 실시하는 것이다. 학교 교정, 체육관, 수영장, 도서실 등의 장소를 활용한다.
 - ④ 기업과의 연계: 기업 주최 지역사회학습에 강사 파견, 기업 직원의 자원봉사 활동 유도, 기업의 각종 시설 개방 촉진 등이다.
 - ⑤ 합동 이벤트의 개최: 지역시설을 이용 도서관, 박물관, 대학의 소장자료 순회전을 개최하므로 상호간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종합 계획전을 여는 것이다.
 - ⑥ 순회서비스 제공: 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학습서비스 제공을 위한 순회 문고용 자동차를 배치한다.
 - ⑦ 신체장애자와 고령자의 활동 지원: 시설 이용 촉진을 위해 사회교육시설과 학교, 복지시설 등이 협력하여 대형활자본, 확대독서기, 녹음테이프, 점자도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 ⑧ 시설봉사 사업의 추진: 여러 가지 활동에 협력할 수 있는 자원봉사 요원을 양성하고 파견한다.
 - ⑨ 시설의 복합화 추진: 각기 상이한 설치 목적과 기능을 가졌어도 복수의 주민서

비스 시설을 동일 건물 혹은 동일 단지내에 설치하여 각 시설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고기능화 고성능화를 도모한다.

2.3.2 공공도서관의 노령자 프로그램

노령인구의 급증으로 우리사회에는 새로운 정보소의 계층이 형성되어 사회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바 사회 속에서 지식정보에의 접근을 지원하는 실행기관인 공공도서관도 이 새로운 정보소의 계층인 노령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① 일반적 현황

공공도서관은 서비스제공에 있어 효과성, 효율성, 공평성, 접근성, 자율성, 유연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일관성 있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즉 공공도서관이 노령자에 대한 정보접근을 지원하려면 어린이, 청소년, 성인, 주부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전문화되어 제공되듯이 노인프로그램도 당연히 전문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도서관협회는 공공도서관의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주제별 봉사대상별 사용미디어 형태별, 도서관 지원방법별로 구분하여 체계화시켰으며, 이진영(2001)은 봉사대상별에서 아동, 청소년, 성인 및 주부, 노인으로 나누어 노령자를 하나의 봉사대상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광동철의 연구에서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제공되는 문화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2000년 서울의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한 문화프로그램 강좌 중 노인 및 장애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노인교실', '덩더쿵체조', '시각장애인 자원봉사 교육' 정도만 제공되었을 뿐이다.

김홍렬(2004)의 연구에서도 노령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복수 응답) 성인 대상 어학프로그램(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문)이 공공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전 강좌의 56%, 컴퓨터 정보분야가 22%, 건강관련강좌 프로그램이 12%, 사군자 서예 등 예술교양이 14%에 달한다. 그러나 도서관 측이 젊은세대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노령인구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수강시간 구분을 해준다던가 하며 노령자를 배려해 준 강좌는 찾기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노령자들의 가장 큰 관심 분야인 건강취미 분야에 요가, 건강체조, 건강기공, 댄스, 수지침, 강좌에서 노령자 전용 수강 시간을 따로 구분해 준 곳이 없었다. 현실적으로 노령자들이 일반인과 함께 일반강좌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노령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강좌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노령자 전용 프로그램은 단순 학습형의 피상적 프로그램이거나 여가선용, 오락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노령자들은 이러한 오락적이고 일회적인 강좌이외의 고용, 노후생활, 뉴스, 건강관리와 자신의 능력을 재개발하고 장기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야의 배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임신영(2005)은 주장 하였다. 공공도서관이 노령층의 커져가는 사회적 비중과 영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며 노령사회의 거대한 이용층에 대비하는 서비스 개발에 미온적이 아닌지 모르겠다.

②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노령자서비스

현재 대전지역에서 공공도서관 노인 전용 열람실은 한밭도서관의 청록실, 안산도서관과 신

탄진도서관의 노인, 장애우실 세 곳정도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제공은 신탄진도서관의 실버강좌, 안산도서관의 일본어교실, 문화정보관의 이야기교실, 갈마도서관의 방문대출 서비스가 있다. 그 외에 도서관에서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고 자료확대기 정도의 열람보조기구를 제공한다.

한밭도서관의 노인전용 열람실인 청록실은 36평 규모에 좌석은 30석으로 큰 테이블과 비교적 안락한 의자가 있다. 독서 공간과 영상음향 코너, 인터넷 검색용 PC를 갖추었고 비디오, 녹음도서가 비치되었다. 청록실 운영은 회원들이 자치적으로 한다. 그러나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으며 성인대상 문화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이다.

신탄진 도서관은 노인, 장애우실에서 매주 하루 영화 상연을 하며 노령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그리고 '사랑의 책 대출서비스'라는 방문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노인을 장애인과 함께 소외계층으로 묶었다는 것이 새로운 발상이다. 열흘 단위의 실버강좌는 하루에 한 주제씩 6-7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깊이 있게 배우기보다는 일회성인 것이 아쉬웠다. 안산도서관은 노인, 장애우실에서 노인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일본어 교실을 운영한다.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노인들의 능력과 경력을 살리면서 모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하겠다.

갈마도서관도 65세 이상 노령자에게 방문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료검색을 한 후 대출 신청을 해야 하므로 정보접근 능력이 부족한 노령자는 실제로 이용하기는 어렵다.

③ 노령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면밀한 검토나 분석 없이 수립한 대책은 장기적으로 효용성이 좋을 수 없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는 특정 교육대상의 정보요구와 상황과 같은 조건을 파악하는 일이다. 장혜란(2002)은 먼저 노령층을 특정한 정보요구를 가진 대상 집단으로 인식한 후 노령층의 정보필요 상황, 정보추구 행태와 노화로 인한 정보접근에 육체적, 지적 장애요소를 파악하고 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애인 또는 노령자를 정보서비스 대상으로 한 초기 연구문제들은 정보요구가 발생하는 상황, 이용정보, 유용한 정보원, 획득하기 어려운 정보원을 식별하고 규명하는데 주력하여왔다. 최근에 주요 연구문제는 보다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예컨대 소외계층의 문제상황 인식, 문제해결 의지 및 해결방법, 문제의 유형과 이에 따르는 정보요구의 표출 정도, 요구에서 이용으로까지 연결 여부,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소외계층의 정보공유 및 정보확산 방법, 정보이용이 소외계층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초기 관심 문제보다 실생활에서 당면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소외 문제의 핵심에 닿아있다고 이제환, 이연옥, 장덕현(2004)은 분석하였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기초로 서비스의 기본틀이 형성되면 두 번째 단계로 서비스 대상의 육체적 지적 특성 즉 감각기능 저하, 건강 수준, 학습능력 부진 등을 고려한 교재, 인터페이스, 정보컨텐츠를 개발하게 된다.

이러한 준비과정이 없는 특별강좌 형식의 일회성 강좌는 실제로 도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공공도서관에서 지역사회조사를 실시하여 피드백을 얻어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³⁾

2.3.3 대전지역 노인복지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통계청의 전국 시도별 인구 증가율 인구구조 부양비 노령화 지수를 한국통계정보 시스템에서 검색한 결과 대전광역시의 2006년도 현재 총 인구는 1,469,304명, 65세 이상 인구는 103,424명으로 인구구성비 7.0%, 노년부양비 9.6%, 노령화지수는 35.9%이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성장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2021-2026 사이에 65세 이상 인구구성비가 급속히 증가하는데 대전시는 노년부양비, 노령화 지수 등 전체적인 노령화 속도가 전국보다 5년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비교적 젊은 전기 노인수가 많다는 의미이다.

노인복지 시설은 노인의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개인이나 가정이 해결하기 어려운 차원의 부담을 사회가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인데 그 중에 거동이 가능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다. 대전시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곳이 670여 개소이다. 대전시의 노인종합복지관은 구마다 1개소씩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서구와 유성구의 노인복지관 이용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3) 장혜란, 이미영(2004) 연구에서 조사대상 도서관 47개관 중 27개관이 지역사회조사 결과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표 5〉 전국대비 대전시 인구구조, 부양비, 노령화지수

		2006	2011	2016	2021	2026
총인구(명)	전국	48,497,166	49,374,788	49,862,489	49,954,095	49,771,248
	대전	1,469,304	1,523,592	1,567,129	1,592,568	1,605,832
인구증가율	전국	0.42%	0.32%	0.12%	0.00%	-0.13%
	대전	0.76%	0.71%	0.45%	0.26%	0.09%
65세 이상 인구구성비	전국	9.5%	11.2%	13.3%	16.4%	20.8%
	대전	7.0%	8.5%	10.5%	13.6%	18.0%
노년부양비	전국	13.2%	15.4%	18.2%	23.1%	30.8%
	대전	9.6%	11.4%	14.2%	18.9%	26.0%
노령화 지수	전국	50.9%	71.3%	98.9%	132.2%	178.7%
	대전	35.9%	50.6%	70.1%	96.0%	139.5%

노인복지관 안내서에 기술된 사회교육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즐겁고 유익한 노후생활을 통한 노령자 삶의 질 향상, 둘째, 노령자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활성화, 셋째, 지역 노령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활성화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제공, 육체적 정신적 건강 도모, 배움의 기회 제공으로 명시되어 있다.

유성 노인복지관은 사회교육, 보건의료, 노인복지, 경로당 네트워크, 경로당 활성화로 나누어 노령자 복지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사회교육 프로그램만을 살펴 보았다. 〈표 6〉 2007년 봄학기 강좌표에서 보는 것처럼 명칭은 서구는 우리노인대학, 유성구는 평생교육원이었다. 사회교육사업은 건강, 교양, 취미, 오락여가로 나누어져 20-40개의 프

〈표 6〉 대전시 노인복지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현황

	건강교실	교양교실	취미교실	오락여가교실	비고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우리노인대학	댄스스포츠 레크-에어로빅 벨리&살사댄스 배드민턴 탁구 게이트볼 단전호흡 기공체조 건강요가 레크-노래교실	한글 영어 과학과 상식 일본어 한문 서예 사군자 시조 풍수지리 컴퓨터 교실	민요 뜨개질 고전무용 사물놀이 오카리나연주	가요교실 즐거운 노래방 추억의 영화감상	무료점심제공
유성구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건강체조 실버요가 스포츠체조 차명댄스 국선도 우리춤체조 게이트볼	한글 영어회화 일본어교실 서예 바둑교실 컴퓨터인터넷	사군자 노래교실 종이접기 장구 민요 한국무용	탁구 장기 바둑	서틀버스운행 그린카드 제도 경로당 네트워크 구축

로그랩이 제공되고 있다. 교육은 1년 과정으로 봄학기 가을학기로 나누어지고 월~금요일까지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 진행된다. 강사진은 분야의 전문가들로 안내서에 성명과 연락처가 명기되어 있었다. 수업은 보통 90분 단위이며 오전은 스포츠댄스, 게이트볼, 건강체조 등 동적인 프로그램이 주로 진행되고 오후에는 교양 교실에 속하는 지식습득 과목들이 제공된다. 여러 과목이 동시에 진행되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수강 인원은 적게는 컴퓨터·인터넷반이 15명 정도이고 많게는 노래교실이 100명으로 평균 30~40명 정도였다.

3. 데이터분석 및 논의

본 조사에서는 공공도서관 노령자 프로그램에 대한 잠재이용자의 인지와 인식, 공공도서관 이용유무의 이유, 정보추구행태, 선호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4일~5일 이틀 동안 대전 지역의 복지관 이용 노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토박이가 많은 대전시 서구 지역의 노인종합복지관의 수강자 76명과, 타지역 유입 인구가 비교적 많은 유성구 노인복지관의 수강자 100명을 대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일대 일 면접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지역 노령자 간에 교육정도나 종교 또는 전직 비율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통계를 내어 보았으나 대학 졸업자 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뿐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인구통계적 항목에서 응답자의 성비와 연령층은 <표 7>과 같이 남성이 80명(45.5%), 여성이 96명(54.6%)이었고, 연령층은 60-65세 5.1%, 66-70세는 9.1%로 70세까지가 14.2%였다. 박옥화(2007)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대전 지역 공공도서관 노령이용자의 65.2%가 60대의 전기노인인 것에 비하여 노인복지관 이용자는 전체적으로 후고령층 이었는데 71~75세가 34.7%, 76~80세가 27.3%, 80세 이상이 23.9%여서 후기노인에 속하는 71세 이상이 151명(85.8%)이나 되었다. 공공도서관은 스스로 찾아 와야 하는 곳으로 기동성이 있어야 방문이 가능하다. 반면에 노인복지관은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하거나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기동력이 비교적 떨어지는 70세 이상 노인들도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응답 노령자들의 학력은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대학졸업 이상 학력자가 서구 10.5%, 유성구 18%로 차이가 있었으나 그 이외의 초·

<표 7> 응답자 연령분포

연령	서구		유성구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60-65	2	2.63	7	7.00	9	5.11
66-70	2	2.63	14	14.00	16	9.09
71-75	19	25.00	42	42.00	61	34.66
76-80	25	32.89	23	23.00	48	27.27
80 이상	28	36.84	14	14.00	42	23.86
합계	76	100	100	100	176	100

〈표 8〉 학력분포

학 력	서 구		유성구		합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무학	17	22.37	18	18.00	35	19.89
초등학교	30	39.47	41	41.00	71	40.34
중학교	12	15.79	11	11.00	23	13.07
고등학교	8	10.53	12	12.00	20	11.36
대학교(이상)	8	10.53	18	18.00	26	14.77
기타 학력	1	1.32	0	0.00	1	0.57
합 계	76	100	100	100	176	100

중·고등학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무학 19.9%는 대부분 여성이었고, 초등학교 졸업이 40.3%, 중학교졸이 23명(13.1%)이었고 고등졸이 20명(11.4%)으로 초등이하가 60.2%이었다. 후기 노령층인 복지관 이용자들이 교육 받을 시기에 우리나라의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도 고등학교 졸업이상 학력의 공공도서관 이용 노령자(박옥화 2007) 보다 학력이 낮은 것이 밝혀졌다.

응답자의 전직은〈표 9〉에서와 같이 공무원 24명(13.6%) 회사원 9.1%, 교사 6.8%, 자영업 32명(18.2%), 기타가 6.8%였는데 기타 속에는 아무일도 안했다는 응답자가 포함되었다.

최초 설문조사지에는 농업 항목이 없었으나 기타 응답 내용에서 농사지었다는 사람이 많아(19명 10.8%) 따로 농업 항목을 만들었다. 이 지역이 20년 전만해도 농지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인복지관은 3월부터 12월까지 1년 과정으로 학기별 과목별로 강의가 진행되고 시간표에 따라 수강생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의 방문 횟수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동안 참여한 강좌수로 참여 기간이나 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수강한 강좌수를 질문하였다.

〈표 10〉에서 보는 것처럼 복지관 개원 초기부터 꾸준히 참여한 사람이 73.3%로 상당히 많

〈표 9〉 전직 분포

전 직	서 구		유성구		합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공무원	11	14.47	13	13.00	24	13.64
교사	4	5.26	8	8.00	12	6.82
회사원	7	9.21	9	9.00	16	9.09
기술직	4	5.26	1	1.00	5	2.84
자영업	9	11.84	23	23.00	32	18.18
주부	22	28.95	34	34.00	56	31.82
농업	15	19.74	4	4.00	19	10.80
기타	4	5.26	8	8.00	12	6.82
합 계	76	100	100	100	176	100

〈표 10〉 수강 강좌 수

구성 항목	서 구		유성구		합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오늘이 처음	14	18.42	9	9.00	23	13.07
1-2번	18	23.68	26	26.00	44	25.00
3-4번	4	5.26	31	31.00	35	19.89
5-6번	6	7.89	20	20.00	26	14.77
7번 이상	19	25.00	5	5.00	24	13.64
참여한 적 없다	15	19.74	9	9.00	24	13.64
무응답	0	0.00	0	0.00	0	0.00
합 계	76	100.00	100	100.00	176	100.00

았다. 새로 온 사람이 25% 정도인데 그 중 24명(13.6%)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않고 친구와 어울리려고 정기적으로 놀러 오는 사람이었으며, 23명(13.1%)은 처음 구경 온 사람이었다. 따라서 도합 47명(26.7%)이 교육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점심, 목욕 등 복지서비스를 받으러 온 것이다. 즉 노인복지관에 다니는 노령자의 73%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노인프로그램 홍보 방법 중 어떤 방법이 노령자 당사자에게 가장 현실적이며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위를 질문한 결과를 〈표 11〉에서 볼 수 있다. 85명(48.3%)이 가족이나 친구가 알려

주었다고 답했다. 홍보 방법에 있어 노인 대상의 직접 홍보 방법을 찾느라 애쓰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자녀나 가족을 대상으로 홍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우연히 지나다니다 알게 되었다는 응답자가 55명(31.3%)이나 되었다. 노령자들에게는 신문처럼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매체 보다 육체적으로 기동력이 떨어져 주거지 근처에 많이 머물기 때문에, 서비스 기관 근처 요소요소에 눈에 띄는 현수막을 걸거나 집집에 전단을 돌리는 식의 전통적 방법이 저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0대라면 90% 이상이 인터넷 홍보를

〈표 11〉 노인복지관 알게 된 경위

구성 항목	서 구		유성구		합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가족이나 친구의 소개	33	43.42	52	52.00	85	48.30
다른 기관의 소개	3	3.95	7	7.00	10	5.68
복지관의 홍보자료	4	5.26	3	3.00	10	5.68
인터넷	1	1.32	1	1.00	2	1.14
우연히	27	35.53	28	28.00	55	31.25
기타	8	10.53	6	6.00	14	7.95
무응답	0	0.00	0	0.00	0	0.00
합 계	76	100.00	100	100.00	176	100.00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아보겠지만 노령자들은 1.14%만이 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

노인복지관에 나오면서 만족스러웠던 것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복수응답) <표 12>이다. 동년배 친구와의 만남이 즐겁다가 141명(80.1%), 새로운 취미를 가지게 되었다가 106명(60.2%), 이발, 목욕서비스를 받아서 좋다가 69명(39.2%), 그리고 60명(34.1%)이 지적육구의 만족을 얻었다고 답했다. 11명이 기타 응답을 하였는데 건강진단을 받는다. 무료 운동시설 사용, 주변 환경이 좋다고 답하였다.

노령자들은 교육프로그램 수강을 위해 노인복지관에 나오면서도 지식습득이 주목적이기 보다는 친구와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인 듯 보였다. 따라서 전문

적인 교육프로그램도 재미가 있도록 오락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가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수준을 파악하며 공공도서관의 노인프로그램이라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인 도서관 이용 경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경험이 있다가 49명(27.8%), 가본 적이 없다가 127명(72.2%)이었다. 도서관 이용 경험자가 적은 것은 설문 응답자의 86%가 71세 이상의 후기 노년층으로 도서관 서비스 자체가 활발치 못한 시기에 학창시절과 사회활동을 하였던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49명에게 이용 시기에 관해 질문한 결과가 <표 13>이다. 학생시절, 젊었을 때와 퇴직하기 전이 각각 9명(18.4%)씩 이었고 꾸준히 이용해온 사람이 5명, 퇴직한 후

<표 12> 노인복지관에 대한 만족도(복수응답)

구성 항목	서 구		유성구		합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지적육구의 만족	18	23.68	42	42.00	60	34.09
동년배 사람과의 만남	62	81.58	79	79.00	141	80.11
새로운 취미	45	59.21	61	61.00	106	60.23
이발, 목욕 등의 서비스	45	59.21	24	24.00	69	39.20
기타	9	11.84	2	2.00	11	6.25
무응답	0	0.00	0	0.00	0	0.00

<표 13> 도서관 이용경험과 시기

구성 항목	서 구		유성구		합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학창시절	3		6		9	18.37
젊었을 때	4		5		9	18.37
퇴직하기 전에	1		8		9	18.37
퇴직한 후(몇년 전)	4		5		9	
자주 꾸준히	3		5		8	
무응답	3		2		5	
합 계	18	100	31	100	49	100

이용하기 시작한 응답자도 9명(18.4%)이었다. 박옥화(2007)의 공공도서관 이용 노령자 조사에서도 50~60대에 도서관 이용을 시작한 응답자가 53%나 되는 것으로 밝혀진 것으로 보아 전기노인을 위한 집중적인 서비스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가 매우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49명에게 도서관 이용 목적을 질문한 결과를 <표 14>에서 볼 수 있다. 제일 많은 31명(63.3%)이 필요한 도서를 대출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도서대출을 하였는지 혹은 도서관은 책을 대출하는 곳이라는 인식 때문에 정답을 말하고자 했는지 알 수 없었다. 박옥화(2007) 연구에서 60대 노령자들의 공공도서관 이용목적으로 신문이나 잡지를 본다는 사람이 81.8%로 실생활 관련 정보접근을 원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에 비해 노인복지관의 70대 노령층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여 일상의 정보를 해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종 교육프로그램 참여차 공공도서관을 방문한 응답자는 4명(8.2%)뿐이고, 영화나 공연, 전시관람을 위해 방문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정종기(2001)의 연구에서 공공도서관 이용목적이 노인교실 이용이 20.7%, 도서대출

이 10.3%, 자료열람이 9.0%, 영화감상이 4.7%로 밝혀진 바 있다.

비슷한 연령대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령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도 응답자가 서비스 받고 있는 특정기관에 따라 도서관 이용목적과 희망자료나 정보이용행태가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노령화로 인해 시력이 약해지고, 기동력이 떨어지는 등 육체적 기능저하에서 오는 장애를 겪는 점은 어느 지역이나 동일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차이는 주변 환경에서 오는 지적욕구에 대한 자극과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역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주제, 내용, 질 그리고 홍보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호기심으로 손주나 친구 따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28.6%나 되는데 이들 잠재 이용자를 실제 이용자로 전환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표 15>는 도서관 방문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게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이다. 가장 많은 응답자인 32명(25.2%)이 기타에 표시 하였다. 기타의 세부 내용은 '도서관에는 오락시설이 없다', '공부에 관심이 없다', '책만 있는 곳이라 심심할 것 같다', '시설이 낡은이 위주여서 불편하다', '도서관은 가고 싶지 않은

<표 14> 도서관 이용목적

구성 항목	서 구		유성구		합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필요한 책 이용	12	66.67	19	61.29	31	63.27
영화나 공연	0	0.00	0	0.00	0	0.00
각종 교육 프로그램	1	5.56	3	9.68	4	8.16
친구들과 시간 보내기	2	11.11	2	6.45	4	8.16
궁금해서 손주와 온 것	3	16.67	7	22.58	10	20.41
무응답	0	0.00	0	0.00	0	0.00
합 계	18	100.00	31	100.00	49	100.00

〈표 15〉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구성 항목	서 구		유성구		합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나이가 너무 많아서	10	17.24	12	17.39	22	17.32
책을 읽지 않아서	13	22.41	11	15.94	24	18.90
시간이 없어서	13	22.41	13	18.84	26	20.47
가기가 불편해서	6	10.34	17	24.64	23	18.11
기타	16	27.59	16	23.19	32	25.20
무응답	0	0.00	0	0.00	0	0.00
합 계	58	100.00	69	100.00	127	100.00

곳이다'로 도서관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나타 내었다. 다음으로 많은 답변은 시간이 없다 26명 (20.5%), 책을 읽지 않는다 24명(18.9%), 나 이가 너무 많아서 가기 힘들다가 22명(17.3%) 으로 나타났다. 장혜란(2002)의 연구에서도 공 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필요 가 없다(53.2%), 거리가 멀다(10%)로 밝혀졌 는데 이들 답변에서 우리는 '공공도서관은 젊은 이들이 공부하는 곳이며 노령자는 눈치가 보인 다', '책을 빌려주는 곳이니 책을 못 읽는 사람은 갈 필요가 없다', '재미는 전혀 없는 곳이다'와 같 은 고령자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낮은 인식과 편견을 볼 수 있다. 즉 공공도서관은 젊은이들이 공부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고착되어 있어서 늙 고 학습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갈 수 없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표 16〉에서 노령자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수준에 대해 보다 직설적으로 질문한 응답 결과(복수응답)를 보여준다. 88명(50%)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 83명(47.2%)이 책을 무 료로 빌릴 수 있는 곳, 12명(6.8%)은 관공서 중 하나로 답했으며 13명(7.4%)만이 교육프로그램 도 제공하는 곳으로 알고 있었으며, 5명(2.8%) 이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이 무료인 것을 알고 있 었다. 기타로 응답한 28명(15.9%)은 '도서관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다', '막연히 좋은 곳이다',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응답하였다.

노령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정보추구 방법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17〉에서 보면 가장 많은 응답자인 79명(44.9%)이

〈표 16〉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복수응답)

구성 항목	서 구		유성구		합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일반 관공서 중 하나	5	6.58	7	7.00	12	6.82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	35	46.05	53	53.00	88	50.00
책을 무료로 빌리는 곳	24	31.58	59	59.00	83	47.16
교육 프로그램 하는 곳	3	3.95	10	10.00	13	7.39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	1	1.32	4	4.00	5	2.84
기타	14	18.42	17	17.00	28	15.91
무응답	0	0.00	0	0.00	0	0.00

〈표 17〉 의문점 해결 방법

구성 항목	서 구		유성구		합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다른사람에게 질문	29	38.16	50	50.00	79	44.89
책이나 도서관을 통해	6	7.89	3	3.00	9	5.11
인터넷	4	5.26	4	4.00	8	4.55
그냥 지나친다	20	26.32	32	32.00	52	29.55
TV나 신문을 본다	17	22.37	10	10.00	27	15.34
무응답	0	0.00	1	1.00	1	0.57
합 계	76	100.00	100	100.00	176	100.00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 정보를 얻고, 52명(29.6%)이 그냥 지나쳐 버리고 있었다. 노령자들은 정보추구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어서 신문이나 TV를 통해 정보를 얻는 응답자가 27명(15.3%)이었고 책을 보거나 도서관에 간다는 사람은 19명(5.1%)으로, 적극적으로 정보추구 하는 사람이 44명(25%) 정도뿐이었다.

그래도 노인복지관에서 인터넷 교육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해온 효과가 있어 8명(4.6%)이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본다고 답했는데 희망적이라 하겠다.

노령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에 대한 응답

을 〈표 18〉에서 볼 수 있다. 지난 수년간 노령자들이 원하는 정보에 관한 여러 건의 선행연구는 거의 비슷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본 조사에서도 건강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107명(60.8%)이 건강관련 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고, 노후문제에 관한 정보를 19명(10.8%)이, 그 외에 취미생활 정보를 16명(9.1%)이 한글을 13명(7.4%)이,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13명(7.4%)이 원했다. 학력조사에서 무학이 19.9%였는데 한글을 지금이라도 깨치고 싶은 노인이 아직도 여럿 있었다.

〈표 18〉 가장 필요한 정보

구성 항목	서 구		유성구		합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건강	47	61.84	60	60.00	107	60.80
노후	8	10.53	11	11.00	19	10.80
재정	1	1.32	0	0.00	1	0.57
취미	10	13.16	6	6.00	16	9.09
종교	0	0.00	7	7.00	7	3.98
가족관계	5	6.58	4	4.00	9	5.11
일자리	5	6.58	8	8.00	13	7.39
한글	2	2.63	11	11.00	13	7.39
관심 없음	1	1.32	2	2.00	3	1.70
기타	2	2.62	0	0.00	2	1.14
무응답	0	0.00	3	3.00	3	1.70

〈표 19〉는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노령자 대상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노령자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 서비스 유형은 어떤 것인지 질문을 한 결과이다. 노령자가 공공도서관 서비스 대상이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응답자가 145명(82.4%)으로 알고 있는 응답자 31명(17.6%)의 4배가 넘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로는 도서대여가 55명(31.3%)으로 가장 많았는데, 다른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도 이유의 일부일 것 같았다. 따라서 홍보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52명(29.6%)으로 앞의 노령자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31명보다 많은 수인 것이 희망적이었다. 그 외에는 무료 컴퓨터, 인터넷 이용과 영화, 음악감상이 각각 17명(9.6%)씩 되었다. 한편 자원봉사를 하러 가고 싶은 9명(5.1%)은 한문, 도덕, 일본어,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고 하였다.

질문 자체가 ‘공공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인데도, 가장 많은 응답인 기타에 표시한 69명(39.2%) 중에는 곳곳하게 ‘노인복지관

이 있으니 다른 곳은 갈 필요가 없다’, ‘도서관 가는데는 비용이 든다’, ‘도서관이란 곳은 노인이 갈 곳이 아니다’, ‘점심식사 제공하는 곳이 좋다’, 심지어 ‘도서관은 무조건 싫다’라고 매우 강하게 거부하는 응답자도 여러 명 되어서 도서관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볼 수 있었으며 그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를 느꼈다.

〈표 20〉은 교육프로그램에서의 희망과목을 개방식으로 이야기하도록(복수응답) 하고 응답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역시 건강증진 강좌에 48명(27.3%)이, 한글은 21명(11.9%)인데, 컴퓨터교실은 예상 밖의 적은 인원인 22명(12.5%)이 희망 하였다. 공공도서관 이외에도 배울 수 있는 곳이 주변에 여러 곳 있기 때문인 듯하다. 특기할 것은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으로 댄스/가요교실을 32명(18.2%)이나 희망하였다는 점이다. 앞에서 ‘공공도서관은 젊은이가 공부하는 곳’, ‘책 빌리는 곳’, ‘노인이 가기 어려운 곳’ 등 매우 경직된 응답을 하다가 마지막 질문인 희망 프로그램 질문에서 공공도서관도 좀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도 하면 좋겠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표 19〉 공공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구성 항목	서 구		유성구		합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도서 대여	13	17.11	42	42.00	55	31.25
영화나 음악	7	9.21	10	10.00	17	9.66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	5	6.58	12	12.00	17	9.66
각종 프로그램 참여	19	25.00	33	33.00	52	29.55
자원봉사	2	2.63	7	7.00	9	5.11
기타	40	52.63	29	29.00	69	39.20
무응답	3	3.65	3	3.00	6	3.41

〈표 20〉 원하는 교육프로그램 과목

구성 항목	서 구		유성구		합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영화감상	3	3.95	7	7.00	10	5.68
독서회	2	2.63	6	6.00	8	4.55
한문교실	5	6.58	13	13.00	18	10.23
컴퓨터 교실	6	7.89	16	16.00	22	12.50
역사기행	0	0.00	3	3.00	3	1.70
건강증진강좌	26	34.21	22	22.00	48	27.27
외국어 교육	1	1.32	10	10.00	11	6.25
댄스 / 가요 교실	13	17.11	19	19.00	32	18.18
한글	14	18.42	7	7.00	21	11.93
관심없음	7	3.21	1	1.00	8	4.55
기타	1	1.32	1	1.00	2	1.14
무응답	2	2.63	6	6.00	8	4.55

4. 문제점 및 제언

노령자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 수준과 희망 교육프로그램, 정보추구 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잠재이용자군인 노인복지관 교육프로그램 수강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문제들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4.1 문제점

응답자 중 실제 도서관 이용 경험이 없으면 서도 도서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다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노령자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4.1.1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문제

2005년 통계청의 한국통계정보시스템을 통

하여 실시한 복지사회통계조사에서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에 대한 응답 결과를 〈표 21〉에서 볼 수 있다. 도서관은 주차시설(13.0%)이나 공원, 유원지(12.9%)에도 훨씬 못 미치는 6.5%로 15세 이상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시설로 인식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3장 분석 부분에서 밝혀졌듯이 노령자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 심지어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심한 편견까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실상 도서관 서비스 이용의 경험이 거의 없는 노령자들은 도서관을 ‘관공서의 하나인데 책을 빌려 주는 곳’, ‘젊은이들이 공부하는 곳’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령자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노령자는 갈 수 없는 곳’, ‘환영받지 못하는 곳’과 같은 편견은 노령자로 하여금 도서관 방문이 흥미 있는 일이 아니라 ‘큰일’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었다. 노령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이와 같은 왜곡된 편견을 깨트리고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표 21〉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행정구역	시설	사회복지 시설	보건의료 시설	주차 시설	공원 유원지	보육 시설	도서관	체육 시설	문화 회관	어린이 놀이터	쓰레기 소각장	기타	
전국		21.3	20.7	13.0	12.9	11.5	6.5	3.9	3.9	3.0	3.0	0.3	100%
서울		19.7	18.6	15.5	12.1	14.5	7.3	3.6	3.6	3.0	1.9	0.1	100%
대전		22.0	18.1	14.9	12.7	12.3	7.4	3.4	3.4	3.0	2.1	0.1	100%

통계청 2005, 사회통계조사에서 재구성

4.1.2 노령자 개인 의식의 문제

노령자 개인에게도 문제가 많음이 발견되었다. 노령화에 따라 창의력과 사고의 유연성이 감소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정보소외나 질병예방의 문제가 가족이나 사회의 책임이기 이전에 일차적으로 본인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고가 부족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관리하며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을 개발할 뿐 아니라 자원봉사 같은 활동을 통해 남을 돕고 재생산하려는 의지를 가진 노령자가 매우 적었다. 예를 들면 희망프로그램 응답의 분석에서 적극적으로 정보소의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좌보다 일회성 오락프로그램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도중 개방 면담시 노령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하여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보다는 소극적으로 수용하고 자기 비하를 하는 노령자가 훨씬 많았던 것이 충격적이었다.

4.1.3 공공도서관 노령자프로그램의 비체계성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노령자 프로그램의 체계성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

육프로그램에서 목표가 명확히 세워져야 그에 따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은 뚜렷한 목표 없이 1회성 여가 프로그램에 가까운 것들이었다. 둘째 노령화에 따른 장애요소 등 노령자의 특성과 그들의 현실적 필요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셋째 노령자서비스에 대한 도서관적 전문성이 부족하였다. 공공도서관이 백화점 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의 레크리에이션 교실이 될 필요는 없다. 도서관으로서의 강점을 그대로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연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채워 나가는 현실적인 운영을 하여야 하겠다. 넷째 교육프로그램 계획과 실행에 있어 필요조사 - 계획 - 실행 - 피드백 - 재생산의 순환이 없었기 때문에 피교육자의 발전이나 제공 프로그램 지속성에 문제가 있었다.

잘 짜여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체계적으로 다음 단계의 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미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 하거나 자원봉사 활동과 연결시킨다면 교육프로그램이 자생력이 있어 성장할 수 있고, 피교육자도 재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4.1.4 노령자를 위한 국가정책의 단편성

정부는 노령사회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 정보기술교육 기회의 양적 확

대, 관련기관간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분담시키고 조정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체계획을 보여주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그리고 따라갈 모델도 제시 해주어야 한다. 예컨대 실생활 관련 자기개발과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자관에서 자체 개발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개발하여 모델 제시를 하면 일선에선 자관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제언

위에서 논의한 문제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이어서 다각적인 시도와 접근으로 서서히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4.2.1 공공도서관 노령자 교육프로그램의 전문화

이용자들이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시설의 교육내용, 주위의 평판, 운영 시간대, 비용, 거리 등을 고려한다. 도서관으로서 어쩔 수 없는 면은 빼고라도 아래와 같은 면은 노력해야 하겠다.

첫째,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은 강좌마다 학습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

둘째, 배운 것을 사용하거나 실천할 수 있는 기회까지 교육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이야기교실 3개월 과정 수료 후엔 관내 어린이실에서 자원봉사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연령대에 따라 관심 주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내용에 있어 연령층에 따라 다른 관심분야를 반영하도록 한다.

넷째, 노령자 전문사서와 전문적 자원 봉사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인 확보는 필수 사항이다.

4.2.2 노인전용 자동차문고 서비스개발

어떤 대상에 대한 편견을 깨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대상으로 하여금 본질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파격적이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노령자들은 기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셔틀버스 서비스가 있는 노인복지관은 부담 없이 다니면서도 공공도서관은 거리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노령자 전용 이동도서관 서비스를 만들어 노령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장소로 서비스를 나가면 어떨까. 이동도서관의 개념은 도서관에 오기 힘든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이 가주는 서비스이다. 현재 대전지역 이동도서관 서비스 차량은 오전, 오후에 각각 관내 아파트 지역을 방문하여 2시간씩 정차하며, 한 장소에서 50-60명 서비스를 하고 있다.

다음은 이에 준하여 노인복지관을 찾아다니는 노령자 전용 이동도서관 서비스 개발 타당성에 대한 논의이다.

- ① 노령자는 공공도서관이 다가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소외 계층으로 그 수에 있어서도 계속 증가하며 더 이상 도서관이 그들을 외면할 수 없다.
- ② 노인복지관 교육프로그램은 학기별로 짜여진 시간표대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

에 일정기간 고정적 이용자 확보가 가능하고, 강좌 사이에 비는 시간이 많아 노인복지관 주변에는 잠재이용자가 항상 많다.

- ③ 노인복지관은 하루 평균 300명이 왕래하는데 무료 또는 저렴한 점심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단 오면 장시간 머문다.
- ④ 노인복지관은 대부분 공원, 산자락, 공터 근처에 위치하여 이동도서관 차량의 정차하고 서비스하기에 여유롭다.

이를 위해 별도의 이동도서관 차량과 노령자 전용 장서개발이 필요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 ① 주제: 우선 모든 주제를 망라할 필요 없이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강좌 중에 도서관이 지원할 수 있는 몇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노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질병예방, 영양 등의 보건정보 집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 밖의 노령자의 관심 주제인 노후생활계획, 경제지식, 정보접근, 취미생활 등으로 확장해 나가면 된다.
- ② 매체: 신체 노화로 인해 읽는 것 보다는 듣는 것을 선호한다. 노령자 전용 장서는 큰글씨 책, 녹음도서, 교육비디오, 영화, 음악 CD와 보조기기로 구성될 것이다.

4.2.3 노령자 교육기관과의 연계와 협력

본 연구 관심 대상인 노령자들은 그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제공을 기대할 뿐 그것이 시민단체든 지역기관이든, 공공도서관 또는 노인

복지관이든 어떤 기관인가에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하나의 기관 내에서 문화, 학습, 취미, 건강 프로그램으로 구분하는 것도 정작 노령자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노령자들은 유용하고 균형 잡힌 통합적 교육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을 뿐이다.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복지기관, 시민단체,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노인 교육프로그램이 비슷한 내용과 수준의 것이었다. 불필요한 중복 투자와 경쟁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에 기술된 상호협력과 공생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첫째, 각 기관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피차 인정해야 한다.

둘째, 실무자들의 지식과 전문성을 공유하며, 직원 재교육과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셋째, 노인복지관 마당에 이동도서관 차량이 정차하는 식으로 시설의 공동 이용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이다.

넷째, 사안에 따라 더 전문적인 기관으로 연계해 주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도서관도 특정 부분에서 보조적 역할을 기여해야 한다.

다섯째, 기관끼리 서로 추천하고 연계해 주는 공동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노인들에게는 매체를 통한 홍보 보다 다른 사람에게 듣는 홍보가 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노령자서비스의 잠재 이용자로 설정한 대전지역 노인복지관 이용

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 선호프로그램, 희망교육 주제,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 등을 파악하고자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일대일 면접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노령자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 수준은 매우 낮았을 뿐 아니라 부정적 편견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둘째 노령자 개인의 의식에 있어서도 의존적이며 스스로에 대한 비하와 수동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셋째 현재 교육프로그램 수강을 하고 있는 비교적 적극적인 노령자들도 정작 정보교육이나 자기개발 교육프로그램 수강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넷째 공공도서관의 노령자 교육프로그램은 일회성과 비체계성 그리고 노인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결여 문제로 인해 이용자의 필요를 현실적으로 채워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노령자가 가지는 장애요인인 접근성 장애, 물리적 장애, 인식의 장애를 수용하여 노령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해야 하며 전용 공간이나, 별도의 노인반 구성도 바람직하다. 둘째 노령자 전용 자동차문고 서비스 개발을 제안한다. 노령자의 특성과 필요를 배려한 매체와 주제선정을 한 특수 집서를 개발하여 노령자들이 모이는 곳을 정기적으로 방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노령자 복지기관, 평생교육기관을 포함한 지역의 연관기관들과 연계하고 협력하면서 도서관으로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다양한 방법과 통로를 사용한 활발한 홍보를 통해 공공도서관 노령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노령자에게 알리고 적극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고경희. 2002. 『공공도서관의 노인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곽동철. 2005. 공공도서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대응전략에 관한 고찰.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1): 153-180.
- 김선호. 2002. 공공도서관의 노인서비스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4): 101-123.
- 김선호. 2004. 공공도서관의 노인편의 증진시설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4): 167-178.
- 김영준. 2006. 지역사회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1): 217-239.
- 김철주. 2004. 세대갈등과 정보격차. 『국회도서관』, 41(3): 36-42.
- 김홍렬. 2004.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문화 및 교육적 기능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4): 339-360.
- 박옥화. 2007. 공공도서관 고령 이용자에 대한 연구 - 대전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375-396.
- 방하남. 2006. 고령화사회의 노동시장. 『국회도서관보』, 43(2): 29-40.
- 선우덕. 2006. 고령화 사회의 노인보건복지. 『국회도서관보』, 43(2): 41-47.
- 이제환, 이연옥, 장덕현. 2004. 소외집단에 대한 정보행태 연구의 방법론적 특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2): 273-295.
- 이진영. 2001. 『공공도서관 운영론』. 서울, 아세아문화사.
- 이소연. 2004.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문화서비스 활성화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23-43.
- 장덕현. 2003. 노령인구의 정보소외와 공공도서관. 『도서관문화』, 44(6): 11-15.
- 장덕현, 임신영. 2005. 지체장애인의 정보소외양상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2): 89-108.
- 장혜란. 2002. 노인들을 위한 인터넷기반 정보서비스 구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9(4): 185-212.
- 장혜란, 이미영. 2004.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조사 수행 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5(2): 161-176.
- 정종기. 2001. 지역사회개발 측면에서 노인을 위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개발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1): 53-71.
- 한형수. 2006. 한국사회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대응. 『국회도서관보』, 43(2): 17-28.
- 홍기선. 2005. 소비자 보건정보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2): 263-281.

